청년 여성의 취업지역 선택요인에 대한 연구

고영우*

본 연구의 목적은 인구이동의 주요 연령층인 20~30대 청년층 여성들의 인구이동 특징을 코호트별로 살펴봄으로써, 이들 청년층 여성이 인구이동 패턴 및 그 변화를 알아보고자 하는 것이다. 또한, 저성장의 경제상황 속에서 청년층 여성이 경험하는 고용형태의 변화가 이들의 취업지역 선택에 있어서 지역이동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을지에 대한 분석을 시도하고자 한다. 한국노동패널(KLIPS) 자료를 활용하여 코호트별로 지방 출신자의 수도권 취업 패턴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1970년대생 코호트에 비해 1990년대생 코호트의 경우 지방 출신자의 수도권 취업이동이 크게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수도권으로의 취업지역 이동에 대한 이와 같은 감소의 원인으로 최근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불안정 고용형태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시사점을 전달한다.

Ⅰ. 서론

인구이동은 한 지역의 인구 변동에 직적적인 영향을 주는 요소일 뿐만 아니라, 인구이동의 성별, 연령별 선별성으로 인해 해당 지역의 출산력과 사망력에도 영향을 주는 요소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미래의 특정 기간 동안 발생할 지역간 인구이동의 성별, 연령별 구조에 대한 정보를 획득한다는 것은 미래의 지역별 인구변동을 이해하고 그것에 대한 실질적인 문제해결 방안을 제시하고 평가하는데 핵심적인 사안일 수 있다(이상일・조대헌, 2012).

이러한 배경에서 특정 연령집단의 이동 패턴은 인구이동 연구의 주요한 주제로서 지속적으로 연구가 이루어져 왔다. 연령별 인구이동의 전형적인 패턴은 연령별로 보면 두 가지 특징을 가지는데, 먼저 유아기의 부모와의 동반이동으로 인한 높은 이동률과 한편 성인기를 거치는 20~30대 연령층의 높은 이동률이라 할 수 있다(Pandit, 1997). 이 두 가지 유형 중 20대의 높은 인구이동 현상은 해당 연령대에서 이들이 성인기로 접어들면서 고등교육기관으로의 진학, 취업, 결혼 등의 과정을 경험하는데 있어 지리적 이동을 수반하기 때문이다.

한편 이들 연령의 인구이동은 그 규모가 일정하게 유지될 경우, 한 국가 또는 지역의 인구구조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특히, 특정 지역으로의 집중적인 이동으로 인한 지역의 인구구조

* 한국노동연구원 부연구위원.

의 변화는 물론 지역산업의 발전 및 쇠퇴에도 영향을 준다(Clark and Onaka, 1983).

이와 같이 인구이동의 선별적 특성의 중요성이 지적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시대별로 인구이동의 선별적 특성에 대한 연구 및 그 시대별 변화에 대한 구체적 논의는 부족한 실정이다. 즉, 인구이동을 지역별 인구수의 변화 및 시도간 인구이동의 크기의 변화만을 시계열적으로 분석하고, 인구이동을 행하고 있는 이동자의 다양한 속성 및 그에 따른 이동의 배경 및 원인에 대한 분석은 단편적으로 이루어졌다고 사료된다. 또한, 선별적 인구이동으로 인한 지역사회의 인구구조 변화가 야기되는데, 이에 대한 사례연구와 논의가 앞으로 더욱 확대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인구이동의 주요 연령층인 20~30대 청년층 인구이동의 특징을 살펴보고자 한다. 특히, 노동시장 내에서 구직을 함에 있어서 상대적으로 좁은 노동시장권역을 형성하는 여성들에 초점을 맞추어, 애초에 노동시장 진입단계에서의 지역이동 패턴 및 원인 등을 살펴보고자 한다. 또한, 저성장 국면에 접어드는 과정에서 이들 연령층이 경험하는 고용형태의 변화가 이들의 취업이동 의사결정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를 분석해보고자 한다.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Ⅱ장에서는 국내 인구이동의 패턴에 대한 선행연구들을 살펴보고자 한다. Ⅲ장에서는 한국노동패널(KLIPS)을 활용하여 청년 여성의 취업지역 이동의 패턴 및 결정요인에 대한 실증분석 결과를 제시한다. 마지막으로 Ⅳ장에서는 본 연구의 결과를 정리하고 시사점을 도출함과 동시에, 후속 연구에 대해 제언하고자 한다.

Ⅱ. 선행연구 검토

1. 국내 인구이동의 패턴 변화

기존의 인구이동 연구는 그동안 인구이동 그 자체를 분석하는데 적합하도록 설계된 데이커가 부복하였기에 그 내용에 한계가 있었다. 즉, 지역간의 이동량과 이동자의 연령별 이동량을 조사하고 있는 자료에서는 인구이동의 핵심적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 이동자의 속성별 이동 원인에 관한 분석이 어려웠으며, 또한 이러한 이동자의 이동 시기가 갖는 사회적·개인적 의미에 대한 해석에 한계가 있었다. 다시 말해서, 그동안의 인구이동 연구는 양적 이동에 치중하여 질적 측면을 간과하고 있었기 때문에, 개인의 삶 안에서 인구이동이 가지는 의미와 더불어 보다 넓게는 인구이동의 사회경제적 의미를 분석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던 것으로 사료된다.

이러한 가운데 권상철(2001; 2003; 2005)의 연구들은 한국에서 인구이동의 지역성과 이동자의 사회적 속성의 변화를 연계시켜 분석한 연구로서 인구이동 연구의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고 할 수 있다. 또한, 그동안의 수도권의 과도한 성장과 주요 기능의 집중은 양질의 인적자원을 흡입하여 주변 지역의 낙후를 유발하는 요인으로 작동하였으며, 이로 말미암아 인재유출이 심각해졌다는 연구결과가 제시되기도 했다(최은영, 2004). 이러한 연구들에서 지적된 수도권과 지방의 격차는 인적자원의 이동에 의해 더욱 심화되고 있기에, 지역 차원에서의 인재 육성 및 지역할당제와 같은 제도가

제안되었다(류장수, 2012).

한편, 2010년대 초반 연구들에 의하면, 인구이동이 양적으로 감소하고 있고, 또한 이동의 방향성도 바뀌고 있다는 결과들을 제시하고 있다. 수도권 인구유입을 포함한 전체적인 시도 간 및 시군구 간 인구이동 또한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다. 김현아(2013)에 따르면, 수도권의 인구성장률은 향후 30년간 4대 권역 중 가장 크게 감소할 것으로 예상하였으며, 수도권으로의 인구이동도 감소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한편, 김현아(2013)는 연령대별 인구이동에서 지난 10년간 전 연령대에서의 인구이동이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하고, 특히 20대의 인구이동 폭이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청년층 경제활동인구 이동률의 감소가 더욱 크다고 언급하고 있다.

그동안 수도권으로의 인구유입이 지속되어져 왔던 것에 비해, 앞서 언급한 수도권으로의 인구유입이 감소하는 추세 속에서, 수도권으로의 유입인구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던 청년층의 인구이동 변화를 보다 면밀히 분석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2. 라이프코스(life course)의 개념에서 본 인구이동

본 절에서는 기존의 인구이동 연구의 방식에 병행하여 영국, 미국, 일본 등에서 행해지고 있는 라이프코스의 개념을 적용한 인구이동 연구에 대해 검토하고자 한다. 라이프코스의 개념은 라이프사이클(life cycle) 연구에서 그 기원을 찾을 수 있기에, 본 연구에서는 라이프사이클의 개념에서 라이프코스의 연구시작으로의 전환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하고자 한다.

개인 및 가족의 생애 기간에 걸친 이동은 전혀 새로운 개념은 아니며, 이동을 라이프사이클의 개념 안에서 다룬 사회과학 분야의 연구는 Glick(1947)의 연구 이후로 본격적으로 발전하게 된다. Glick(1947)은 1940년대 미국 센서스 자료를 활용하여 미국인 가족이 겪는 전형적인 7단계의 라이프사이클과 가족 이동의 특징을 제시하였다. 그 이후 라이프사이클의 개념을 적용한 연구는 더욱 발전하게 되는데, 그 중 가족의 사회경제적 요인들과 이동성에 대해 연구한 Rossi(1955)의 연구가 대표적이라 할 수 있다.

한편, 점차 라이프사이클의 개념은 특정 가치관, 즉 남녀가 만나 가족을 꾸리고 그 안에서 자녀가 출생하는 근대적 가치관을 강하게 반영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비판받기도 하였으며(Laslett, 1989), 특정 지역과 장소에 따라 라이프사이클은 차이를 보일 수 있다는 시각이 대두되면서 라이프사이클의 개념 및 이와 관련된 이동의 연구는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게 된다(Anderson, 1985). 이러한 흐름 속에서, Hall(1995)은 1990년대 이후 미국에서는 더 이상 전형적인 가족의 형태가 주가 되지 않음을 지적하면서 라이프사이클의 일탈, 즉 가양한 인생의 현태에 대한 연구가 필요함을 주장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인구이동의 패턴 변화에 대한 연구가 앞으로 발전하는데 있어서, 기존의 연구자료와 연구방법에 병행하여 라이프코스의 개념을 적용한 인구이동에 대한 이해가 필요함을 강조하고, 이동자 개개인의 연속적 이동을 파악하면서 지역간의 이동의 구체적 내용을 확인하는

작업을 수행하고자 한다.

라이프코스 연구시각에서 이동을 바라보면, 특정 시기(시대)의 이동 패턴은 그 시대의 사회구조와 밀접히 관련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시대의 고유한 사회경제적 상황이 개인의 라이츠이벤트(진학, 취업, 결혼 등)에 영향을 미치고 있고, 이는 공간적 맥락에서 이동과 연계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라이프코스의 어느 특정 시기보다는 개인의 사회적 역할의 변화가 발생하는 시점이 라이프코스의 구조를 이해하는데 있어 중요하다는 Jackson(2004)의 연구결과를 참고하여, 청년층의 학교 졸업 이후와 첫 일자리 취업이라는 부분에 주목하고자 한다. 또한, 첫 취업이동 패턴의 변화가 다양한 사회경제의 구조적 변화와 관련되어 있음을 고려하여, 지속적으로 증가한 불안정한 고용형태가 청년층의 취업이동의 의사결정에 어꺼한 영향을 줄 수 있을지에 대해 분석하고자 한다.

Ⅲ. 청년 여성의 지역이동

1. 이동유형별 기초분석

본 절에서는 분석의 초점을 학교에서 노동시장 이행단계에 초점을 맞추어 각 유형별 변화를 살펴보고자 한다. 우선, 이를 위해 표본을 다음과 같이 다섯 가지 유형으로 구분하였다. 이러한 유형들은 지역이동에 초점을 맞추어 출신 고교소재지, 출신 대학소재지, 현(첫) 직장소재지 간 이동 여부에 따라 구분한 것이다. 기본적으로 고교에서 대학으로의 이행과정 및 대학에서 직장으로의 이행과정에서 지역이동 여부를 구분하면 네 가지 유형의 도출이 가능하다. 다만, 출신 고교소재지와 출신 대학소재지가 다르고, 대학소재지와 직장소재지가 다르다고 하더라도, 원래의 출신 고교소재지로 직장소재지가 회귀한 경우는 별도의 구분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하나의 유형을 추가하였다. 또한, 지역간 이동여부를 5개 권역(서울권/경인권/충청권/영남권/호남권) 간 이동을 기준으로 분석을 수행하였다.[1)]

<표 1>에 제시되어 있는 바와 같이, 고교-대학-직장 간 이동이 한 번도 발생하지 않은 유형1의 비중은 표본에서 전체적으로 61.5% 정도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코호트별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최근 출생년 코호트로 다가올수록 그 비중이 다소 줄어들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비중이 53.4%로 절반 이상을 차지하였다. 그 다음으로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유형은 유형3(대학졸업 후 취업 이동)과 유형5(대학진학 이동 후 회귀)임을 발견할 수 있는데, 이 두 유형은 코호트별로 정반대의 특징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형3의 경우에는 최근 출생 코호트에서 비중에 낮아지는 반면, 유형5의 경우에는 그 비중이 90년대생 코호트에서 증가함을 확인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유형2(대학진학 이동 후 잔류)의 비중 역시 최근 출생년 코호트에서 상대적으로 높아지고 있음을

1) 본 연구에서는 출생년 코호트별 표본수의 제약으로 인해, 5개 권역을 기준으로 지역이동을 식별하였다. 여기서 지역 간 이동여부를 16개 광역시도 간을 기준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5개 권역 간 이동을 기준으로 할 것인지에 따라 상이한 결과가 도출될 수 있음에 주의해야 한다.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로부터, 시간이 지남에 따라 지방고교 출신자가 대학 진학시 수도권 등 타 지역으로 이동하지 않는 한, 대부분이 지방에서 취업을 하고 있음을 유추해 볼 수 있다.

<표 1> 이동유형별 표본 비중: 출생년 코호트별 비교

(단위: 명, %)

	70년대생	80년대생	90년대생	전체
유형1	261 (63.7)	471 (61.5)	191 (59.0)	923 (61.5)
유형2	30 (7.3)	66 (8.6)	33 (10.2)	129 (8.6)
유형3	71 (17.3)	90 (11.8)	39 (12.0)	200 (13.3)
유형4	12 (2.9)	27 (3.5)	7 (2.2)	46 (3.1)
유형5	36 (8.8)	112 (14.6)	54 (16.7)	202 (13.5)
전체	410 (100)	766 (100)	324 (100)	1500 (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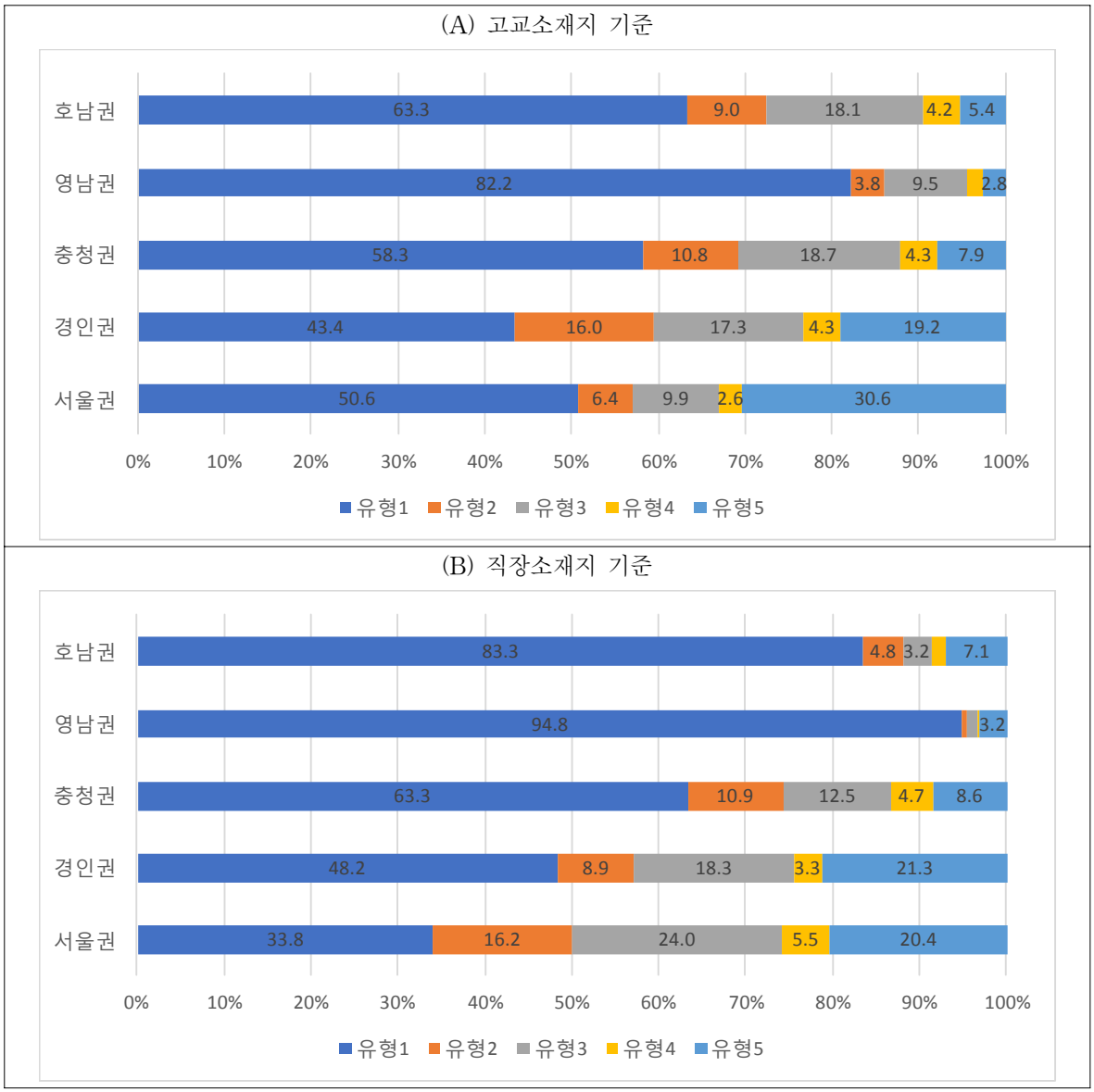
주: 1) 유형1은 비이동(고교소재지/대학소재지/직장소재지 모두 일치), 유형2는 대학진학 이동 후 잔류(대학소재지와 직장소재지만 일치), 유형3은 대학졸업 후 취업 이동(고교소재지와 대학소재지만 일치), 유형4는 모두 이동(고교소재지/대학소재지/직장소재지 모두 불일치), 유형5는 대학진학 이동 후 회귀(고교소재지와 직장소재지만 일치)를 의미함.

2) 괄호()안의 수치는 각 유형이 차지하는 비중을 의미함.

자료: 한국노동연구원, 한국노동패널 1~20차 (학술대회용) 자료

[그림 1]에는 권역별 지역을 중심으로 이동유형별 분포가 어떤지를 분석한 결과가 제시되어 있다. 출신 고교소재지를 중심으로 살펴보았을 때, 지역을 이동하지 않은 유형1의 비중이 모든 권역에서 가장 높게 나타나는데, 특히 영남권의 경우에는 무려 82.2% 수준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서울권과 경인권의 경우에는 다른 권역들보다 상대적으로 비이동자(유형1) 비중이 낮은 반면, 대학진학 이동 후 회귀하여 취업한 유형5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많이 높다는 것을 쉽게 확인할 수 있다. 다음으로, 직장소재지를 중심으로 살펴보면, 영남권(94.8%) 및 호남권(83.3%)의 비이동자(유형1) 비중이 현저히 높은 반면, 서울권의 비이동자(유형1) 비중은 35%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고교소재지를 중심으로 살펴보았을 때와 마찬가지로, 서울권 및 경인권의 유형5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음을 확인할 수 있는데, 직장소재지를 중심으로 비교하면 서울권(24.0%)과 경인권(18.3%)의 유형3(대학졸업 후 취업 이동) 비중도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에 있음을 발견할 수 있다.

[그림 1] 5개 권역 기준 이동유형 비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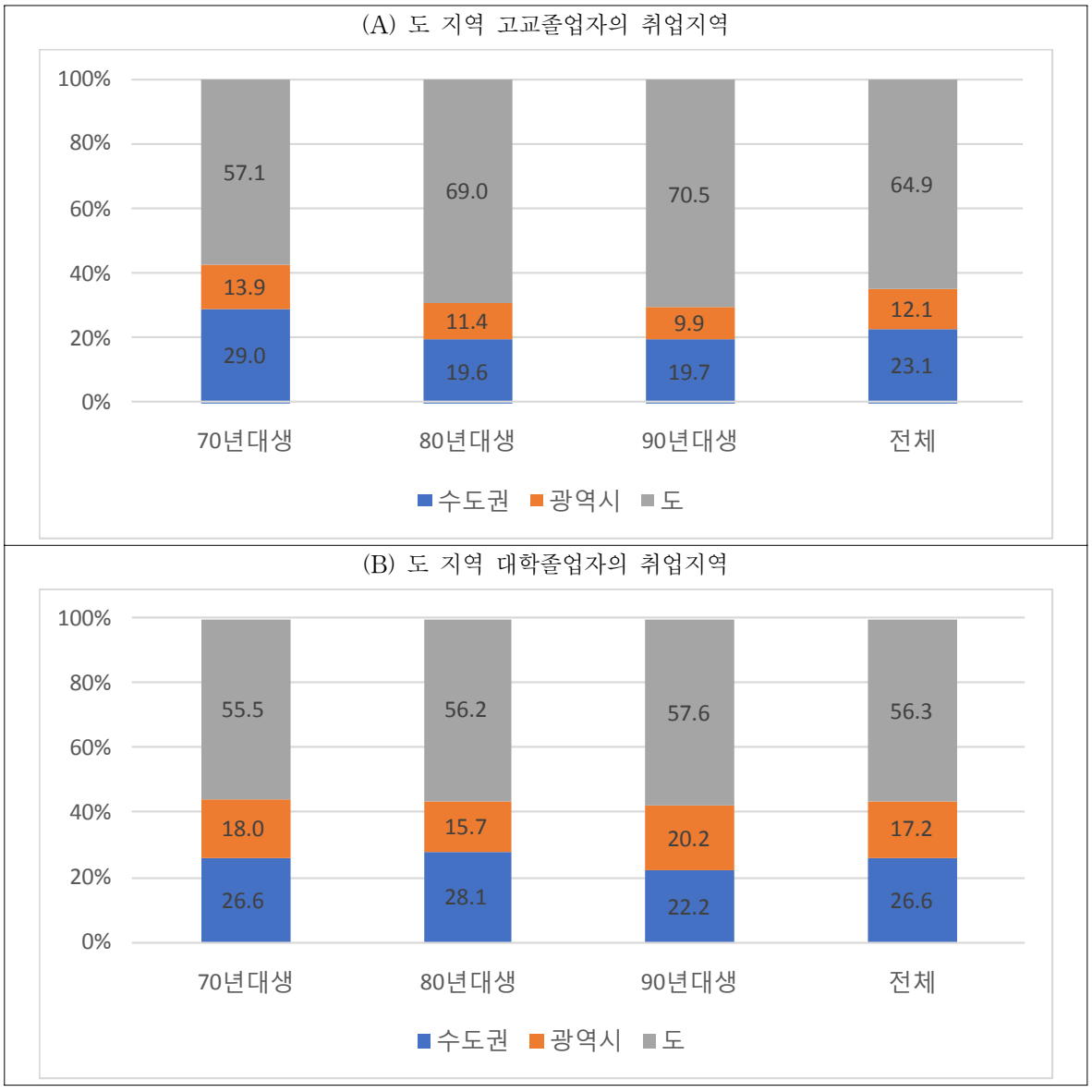
주: 1) 유형1은 비이동(고교소재지/대학소재지/직장소재지 모두 일치), 유형2는 대학진학 이동 후 잔류(대학소재지와 직장소재지만 일치), 유형3은 대학졸업 후 취업 이동(고교소재지와 대학소재지만 일치), 유형4는 모두 이동(고교소재지/대학소재지/직장소재지 모두 불일치), 유형5는 대학진학 이동 후 회귀(고교소재지와 직장소재지만 일치)를 의미함.

2) 서울권(서울), 경인권(인천/경기/강원), 충청권(대전/충북/충남), 영남권(부산/대구/울산/경북/경남), 호남권(광주/전북/전남/제주)를 의미함.

자료: 한국노동연구원, 한국노동패널 1~20차 (학술대회용) 자료

[그림 2] 청년층 여성의 첫 취업이동 패턴

(단위: %)



주: 수도권에는 서울, 인천, 경기 지역이 포함됨.

자료: 한국노동연구원, 한국노동패널 1~20차 (학술대회용) 자료

2. 청년층 여성의 첫 직장 취업이동

청년층의 첫 취업시 거주지 이동은 중요한 의미를 내포한다. 특히, 대학교 진학시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지 않은 비이동자의 경우에는 취업시 기존의 삶의 터전을 떠나서 새로운 지역과 장소를 경험하는 것이 인생의 중대한 의사결정 중 하나로 작용하게 된다. 게다가, 상대적으로 노동시장권역

이 좁다고 알려져 있는 지방 출신 여성들의 경우에는 대학 진학시 주변 지역으로의 진학을 결정하고 졸업 이후에 첫 직장을 수도권과 같은 대도시에서 생활하게 되는 것이 삶의 다양한 측면에서 새로운 도전들에 직면하게 된다는 것을 예측해 볼 수 있다.

[그림 2]에는 지방(도 지역) 출신 청년 여성들의 첫 직장소재지 비중을 보여주고 있다. 먼저, 도 지역의 고교졸업자를 기준으로 취업지역 분포를 살펴보면, 약 23.1% 정도가 수도권(서울/인천/경기)에 취업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약 64.9% 수준에 달하는 사람들이 계속 지방에 남아서 취업을 하게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경향은 출생년 기준 코호트별로도 유사함을 확인할 수 있으나, 다만 최근 출생년 코호트로 올수록 수도권에서 취업한 비중은 줄어들고 지방에서 그대로 취업하는 비중이 다소 늘어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지방(도 지역) 대학 졸업자의 취업지역을 살펴보아도 유사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음을 쉽게 발견할 수 있다. 수도권 취업자의 비중보다는 지방 취업자 비중이 월등히 높은 것으로 나타남과 동시에, 최근으로 올수록 수도권 취업자 비중은 줄어들고 도 지역 취업자 비중을 증가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결과로부터, 최근 청년 여성의 지역이동, 특히 수도권으로의 이동이 상대적으로 둔화되고 있음을 유추할 수 있다.

Pierson(2000)이 언급한 바와 같이, 노동시장은 일정한 공간적 범위를 지니고 있으며, 노동시장 자체의 이동은 주거지의 변동 및 여러 사회경제적 비용을 동반하는 행위이다. 노동시장의 선택은 일종의 경로의존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노동시장으로의 진입에 있어서 한 차례 선택되어지면 쉽게 변하지 않는 특성을 가지게 되는 만큼 중요한 의미가 주어지는 것이다. 권오규・마강래(2012)의 연구에서는 지방 출신이 수도권 대학을 졸업했을 때,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해 수도권에 직장을 가질 확률이 약 11.4배 정도 높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본 연구에서와 마찬가지로, 출신 대학소재지가 직장소재지와 유사해지는 경향이 강해지고 있으며, 특히 지방에서 그 경향이 강함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이현욱(2013)의 연구에서는 최근으로 올수록 둔화되고 있는 (수도권으로의) 취업이동의 감소 원인을 살펴보고자, 신규 취업자들의 취업문제로 대두된 불안정 고용형태와 취업이동 의사결정 사이의 관계를 고찰하였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취업이동 의사결정에 불안정 고용형태의 저임금, 신규취업에 있어서의 불안정 고용형태의 전국적 확산, 정규직 고용형태로의 낮은 고용전환률 등이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지적하였다. <표 2>는 지방(도 지역) 출신 청년 여성들의 정규직 비중을 직장소재지 및 출생년 코호트별로 보여주고 있다. 취업지역별로는 수도권 취업자의 정규직 비중이 지방(도 지역) 취업자의 정규직 비중보다 높다는 것을 쉽게 확인할 수 있다. 이는 지방 고교 졸업자 및 지방 대학 졸업자의 경우와 상관없이 일정한 패턴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출생년 코호트별로는 다소 다른 결과를 보여주는데, 우선 최근으로 올수록 정규직의 비중이 줄어들고 있음을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정규직의 비중이 점점 줄어들고 있는 경향은 수도권 취업자 집단에서 더 확연하게 나타나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로부터, 최근 둔화되고 있는 (수도권으로의) 취업이동의 원인으로 점점 줄어들고 정규직의 비중을 살펴볼 필요가 있음을 유추해 볼 수 있다.

<표 2> 취업지역별 정규직 비중

(단위: %)

	70년대생	80년대생	90년대생	전체
(A) 도 지역 고교졸업자 기준				
수도권	77.3	75.0	53.8	72.7
광역시	58.3	77.1	53.8	65.5
도	64.9	60.7	45.2	58.8
전체	67.6	65.4	47.7	62.8
(B) 도 지역 대학졸업자 기준				
수도권	88.2	66.2	50.0	69.2
광역시	69.6	69.8	50.0	65.1
도	83.1	58.4	43.9	61.7
전체	82.0	62.4	46.5	64.3

주: 수도권에는 서울, 인천, 경기 지역이 포함됨.

자료: 한국노동연구원, 한국노동패널 1~20차 (학술대회용) 자료

3. 회귀분석

본 절에서는 청년 여성의 취업지역 선택요인에는 무엇이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회귀분석을 수행하였다. 특히, 수도권 취업에 영향을 주는 요인은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를 검정해보고자 한다. 따라서, 종속변수는 수도권 취업여부에 대한 이산변수(binary variable)를 활용하였으며, 이에 대한 설명변수로 취업시 나이, 출생년 코호트 구분, 대학소재지 구분, 4년제 대학 여부, 정규직 여부, 로그 시간당임금 등을 활용하였다. 산업 및 직종은 대분류 수준에서 통제하였다.

<표 3>은 수도권 취업여부 결정요인 분석을 위해 수행한 프로빗 모형의 추정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우선, 대학소재지가 수도권이 아닐 경우에 수도권으로의 취업확률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추정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앞서 언급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취업을 하는 과정에서 지역이동이 둔화되고 있는 것과 일치되는 결과라 할 수 있다. 코호트 구분 변수에 대한 추정결과를 살펴보면, 1970년대생 여성들에 비해서 1980년대생 여성의 수도권 취업확률은 상대적으로 높았던 반면, 1990년대에 태어난 여성들의 취업확률은 높은 것으로 추정되었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취업 당시의 나이가 많을수록 수도권 취업확률이 높은 것으로 추정되었으며, 전문대 졸업생에 비해 4년제 대학교 졸업자의 수도권 취업확률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정규직 여부는 수도권 취업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임금수준은 수도권 취업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표 3> 수도권 취업여부 결정요인 분석: 프로빗 분석결과

종속변수: 수도권 취업여부		모형1	모형2	모형3
취업시 나이		0.032**	0.033**	0.036**
코호트 (기준: 70년대생)	80년대생	0.238*	0.256*	0.291**
	90년대생	0.226	0.262	0.346
대학소재지 (기준: 수도권)	광역시	-2.881***	-2.895***	-2.891***
	도	-2.406***	-2.420***	-2.414***
4년제 여부		0.289***	0.294***	0.244**
정규직여부		-	0.162	0.133
로그 시간당임금		-	-	0.316***
산업통제(대분류)		Yes	Yes	Yes
직종통제(대분류)		Yes	Yes	Yes
연도통제		Yes	Yes	Yes
결정계수		0.493	0.494	0.501
표본수		1,603	1,603	1,584

주: *, **, ***는 각각 10%, 5%, 1% 유의수준에서 추정계수가 통계적으로 유의함을 의미함.
자료: 한국노동연구원, 한국노동패널 1~20차 (학술대회용) 자료

<표 4>는 수도권 취업여부 결정요인 분석을 위한 프로빗 모형의 추정결과 코호트별로 보여주고 있다.[2] 우선, 취업 선택에 있어서 지역이동의 특징을 살펴보기 위해 대학소재지 구분에 대한 추정결과를 비교하면, 코호트에 상관없이 모두 비수도권 소재 대학을 졸업한 것이 수도권 취업확률을 높이는데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코호트별 추정결과 비교를 통해 최근 출생 코호트에서 취업지역 선택에 있어서 지역이동이 경직되어 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다시 말해서, 지방(도 지역) 소재 대학 졸업생이 수도권 소재 대학 졸업생보다 수도권 취업확률이 낮은 것으로 추정되는데, 1970년대 출생 코호트에 비해 1990년대 출생 코호트에서 추정치의 절대값이 크게 추정되는 바, 1990년대 출생 코호트에서는 지역 내 취업이 상대적으로 더 많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4년제 대학교 여부는 1980년대생 코호트 분석에서만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추정되었으나, 1970년대생 코호트와 1990년대생 코호트 분석에서도,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지만, 수도권 취업확률을 높이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앞선 전체 코호트에 대한 분석결과와 마찬가지로, 정규직여부는 수도권 취업확률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이상의 결과로부터, 본 연구에서 지속적으로 논의한 최근으로 다가올수록 청년 여성의 취업으로 인한 지역이동이 감소하고 있는 경향을 재확인할 수 있었던 것으로 사료된다.

2) 코호트별로 분석을 위한 표본수가 충분히 확보되지 않아서 통계적 유의성은 다소 약하게 추정된 측면이 있지만, 앞서 살펴본 코호트별 특징을 파악하기 위해서 제한적인 분석을 수행하였다. 따라서 해석을 함에 있어서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표 4> 코호트별 수도권 취업여부 결정요인 분석: 프로빗 분석결과

종속변수: 수도권 취업여부		70년대생 코호트	80년대생 코호트	90년대생 코호트
취업시 나이		-0.012	0.064**	0.009
대학소재지 (기준: 수도권)	광역시	-2.780***	-3.160***	-3.453***
	도	-2.273***	-2.590***	-3.284***
4년제 여부		0.259	0.309**	0.262
정규직여부		-0.075	0.189	0.389
로그 시간당임금		0.255	0.368**	0.273
산업통제(대분류)		Yes	Yes	Yes
직종통제(대분류)		Yes	Yes	Yes
연도통제		Yes	Yes	Yes
결정계수		0.497	0.538	0.593
표본수		409	848	315

주: *, **, ***는 각각 10%, 5%, 1% 유의수준에서 추정계수가 통계적으로 유의함을 의미함.
자료: 한국노동연구원, 한국노동패널 1~20차 (학술대회용) 자료

Ⅳ. 결론

인구이동에 관한 제 문제는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정책수립 과정에서 가장 먼저 논의되어야 할 과제임에도 불구하고, 의외로 이에 대한 실증적 연구내용이 부족할 실정이다. 특히, 현대사회와 같이 인구가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지 않은 국가에서의 인구이동은 지역의 역동성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하지만 인구이동 현상은 거시적으로는 지역사회의 존립과 연관되는 문제이기도 하며, 미시적으로는 개인의 삶에 커다란 변화, 즉 전환기를 가져오는 현상이기도 하다.

본 연구에서는 앞으로의 인구이동 연구에는 이동의 선별적 특성에 주목할 필요성이 있음을 강조하고 싶었다. 또한, 이를 위해서는 인생의 연속선상에서 발생하는 인구이동의 특성을 파악할 수 있는 다양한 조사 및 자료를 활용하여, 이동자의 속성별 분석이 필요하다. 특히, 라이프코스의 연구시각을 적용한 인구이동 패턴에 대한 연구는 기존의 인구이동 감소 현상에 대한 보다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의미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에서는 2000년대 전후에 첫 취업을 하게 되는 코호트(70년대생/80년대생/90년대생)별로 인구이동 패턴을 분석한 결과, 최근 인구이동이 감소한 이유로 청년층의 낮은 대학진학 이동 및 대학소재지에서의 취업이 증가했기 때문임을 유추할 수 있었다. 다시 말해서, 최근 코호트로 올수록, 대학소재지와 취업지와의 관계가 강화되고 있는 바, 지방고교 출신자의 경우 대학 진학시 수도권 등 타 지역으로 이동하지 않는 한, 대부분이 지방에서 취업을 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한국은 여성의 고학력화가 급속하게 진행되었기 때문에, 한국의 청년층 여성은 세계적으로도 높

은 대학진학률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지방대학 출신 청년층 여성의 지방 취업 경향 강화는 지역 차원에서 인구를 유지시키는 긍정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한편, 대학소재지와 직장소재지의 연계가 강화되고 있는 현실 속에서, 대학 졸업 후 해당 지역에서 취업(또는 다른 지역으로의 이동을 이행)을 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출신 대학소재지에 지속적으로 잔류할 수밖에 없다는 측면에서, 이에 대한 봇보다 심화된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지역의 규모를 고려하여 수도권과 지방의 구분이 아닌, 도시 규모별 취업지역 선택에 대한 연구를 수행할 필요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에서는 표본수의 부족 등을 이유로 수행하지 못한 분석이 존재하는 바, 한국노동패널(KLIPS) 자료 이외의 자료들, 예컨대 대졸자직업이동경로조사(GOMS) 등을 활용하여 본 연구결과에 대한 강건성(robustness)을 검정하는 연구가 추가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참고문헌

권상철(2001), 「인구이동과 지역발전: 한국에서의 인적자원유출」, 『한국도시지리학회지』 4(1): p.67-79.

_____(2003), 「인구이동과 인적자원 유출: 제주지역 유출 유입인구의 속성 비교」, 『한국도시지리학회지』 6(2): p.59-73.

_____(2005), 「우리나라 수도권으로의 인구이동: 시기별 유출지역 특성과 이주자 선별성의 상대적 중요도 평가」, 『한국지역지리학회지』 11(6): p.571-584.

권오규・마강래(2012), 「대학진학이 인구이동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 『지역연구』 28(4): p.65-77.

김현아(2013), 「현안분석2: 시도간 인구이동과 재정정책」, 『재정포럼』 203: p.23-38.

류장수(2012), 「지방대학 재정지원사업의 성과분석」, 『지역사회연구』 21(1): p.113-135.

이상일・조대헌(2012), 「지역간 인구이동의 예측을 통한 우리나라 시도별 장래 인구 추계: 다직역 코호트-요인법의 적용」, 『대한지리학회지』 47(1): p.98-120.

이현욱(2013), 「청년층 여성의 취업이동과 불안정 고용에 대한 연구」, 『한국도시지리학회지』 16(2): p.105-118.

최은영(2004), 「선택적 인구이동과 공간적 불평등의 심화: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국도시지리학회지』 7(2): p.57-69.

Anderson, M.(1985), "The Emergence of the Modern Life Cycle in Britain," *Social History* 10: p.69-87.

Clark, W. and J. Onaka(1983), "Life Cycle and Housing Adjustment as Explanations of Residential Mobility," *Urban Studies* 20(1): p.47-57.

Glick, P.(1947), "The Family Cycle,"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12(2): p.164-174.

Hall, R.(1995), "Households, Families, and Fertility," in R. Hall and P. White (eds.) *Europe's Population: Toward the Next Century*, UCL Press, London.

Jackson, P.(2004), "Role Sequencing: Does Order Matter for Mental Health," *Journal of Health and Social Behavior* 45: p.132-154.

Laslett, P.(1989), *A Fresh Map of Life: The Emergence of the Third Age*, Weidenfeld & Nicolson, London.

Pandit, K.(1997), "Cohort anf Period Effect in U.S. Migration: How Demographic and Economic Cycle Influence the Migration Schedule," *Annals of the Association of American Geographers* 87(3): p.439-450.

Pierson, P.(2000), "Path Dependence, Increasing Returns, and the Study of Politics,"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94(2): p.251-267.

Rossi, P. H.(1955), *Why Families Move: A Study in the Social Psychology of Urban Residential Mobility*, Free Press, Wilmington, IL.